

올 하반기는 성과와 실천의 시간, 소통과 협업으로 속도감 있게 성과 도출

- 기획예산처 제7차 확대간부회의 개최 -

- 적극행정 우수자·격무부서 등 포상 수여, 직원 노고 격려 및 재충전 강조
- 업무추진 시 이해관계자와의 적극 소통 및 법령 제·개정 신속 추진 당부

기획예산처는 '26.7.16.(목) 10시 정부세종청사 5-1동 4층 대회의실에서 박홍근 장관 주재로 제7차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하였다.

회의에 앞서 박홍근 장관은 장관정책보좌관 임명식, 모범공무원(2명) 및 장기근속자(4명) 공로패, 사무관 승진자(6명) 임명장,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8명) 및 격무부서(1국·2과) 격려금 포상 수여식을 진행하였다.

이어서 박 장관은 “하반기 첫 확대간부회의를 고생한 직원들에 대한 포상 수여식으로 시작하게 되어 더욱 뜻깊다”는 소회를 밝히며, 7월 들어 재경위 전체회의, 청년정책 전문가 토론회, 국가재정전략회의, 부처 업무보고 등의 현안으로 숨 가쁜 일정 속에서도 빈틈 없이 준비하고 대응해 준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아울러, “재충전을 통해 업무능률을 향상할 수 있도록 간부들이 솔선하여 직원들의 하계휴가 사용을 독려할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박 장관은 “하반기에 접어든 만큼, 이제는 그간 계획했던 과제들을 실천에 옮길 시간”임을 강조하면서, “예산안 편성,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등 과정에서 일반국민·국회·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적극 소통하고, 필요한 법령 제·개정 절차에도 신속히 돌입할 것”을 주문하였다.

먼저,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한창인 시점에도 선제적으로 국회·정당의 의견을 수렴하고, 7월 임기가 시작된 민선 9기와도 최대한 신속하게 소통에 나설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국민 의견수렴을 폭넓게 전개하고, 미래사회의 주역인 청년 세대의 제안을 면밀히 살필 것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공익신고장려기금법, 자발적 탄소시장법 등 기획처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법안에 대해서는 상임위와 긴밀한 사전협의를 거쳐 법안 통과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다.

마지막으로, “기획처가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핵심아젠다 중 난이도가 높거나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에 대해서는 그 실행전략을 더욱 촘촘하게 수립하여 조속히 이행할 것”을 당부하였다.

담당 부서	기획예산처 기획재정담당관	책임자	과 장	류승수 (044-214-1410)
		담당자	서기관	이홍섭 (leehs86@korea.kr)
			사무관	김나현 (nahyun5959@korea.kr)
			주무관	문강기 (bbor200@korea.kr)